

한국의 독자와 한국인 저자

朴異汶

美시몬스대학 교수 · 영문학

책이 흥수같이 출판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민주화선언' 이후 그 내용이 가지각색이고 그 톤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불온서적, 과격한 사상이라고 해서 다시금 언론통제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극히 근시안적 조치라고 믿는다. 완전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여 사상과 주장이 넓은 공동의 광장에서 민주적으로 비판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더 많은 책이 나오고, 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많은 양의 책들, 이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는 책들, 그 많은 독자들은 함께 한국의 높은 정신적 문화수준을 입증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이 물음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의 독자층이 누구이며, 한국의 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자.

교본교과나 종로서적에 뻑뻑하게 서서 책을 뒤적거리고 있는 독자들의 대부분은 중고교 학생들 아니면 대학생들이다. 그밖의 성인들, 학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이런 사실은 독서층의 지적 수준이 낮음을 말해준다. 출판계의 중심적 화제가 베스트셀러에 있고, 베스트셀러는 극히 감상적인 것이 아니면 원색적으로 감각을 자극하거나 또는 살벌할 만큼 선동적인 이념서적인 것 같다. 대중문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 국가, 한 민족의 문화수준을 자랑할 수 없다. 아직도 한국의 독서층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그 층이 얇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서층의 상황은 한국의 저자층과도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한국학·동양학 관계이거나 창작문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판은 번역물이다. 모든 학술적인 면에서 한국인의 독자적 이론이나 생각이 아직도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학술분야에서 거의 예외없이 한국의 학자들은 아직도 외국의 것을 이해하고 소개하기에 급급한 단계에 있다. 번역이 아니라 독자적인 저서를 내는 경우도 그것은 흔히 남의 것을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자기 자신의 독자적 이론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그러한 저서는 외국어를 잘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즉 흔히 아직 교육수준이 낮은 독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외국어를 잘하는 독자들도 한국인의 저서 대신 외국인이 쓴 원서를 직접 읽기를 선호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한 분야에 있으면서도 한 학자가 쓴 저서를 다른 학자가 진지하게 읽는 경우가 아직은 극히 드물다고 짐작된다. 학자들간에 서로의 학문적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한 학자가 어떤 저서를 냈다고 해서 그것의 내용이 진지하게 토론되고 평가되는 예는 보기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족주의, 민족문화의 소리높이 부르는 학자에게도 해당된다. 그들의 이론과 주장이 서양적 사상에 뒷받침되어 있다는 말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아직도 우리의 知的, 학문적 상황은 완전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 아니라 외국문화에 의존되거나, 요새 유행되는 말을 빌리자면 종속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에 의한 한국에서의 저서가 보다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독자적 사고를 해야 하겠거니와, 그러한 것을 조장하는 의미에서도 한국인에 의한 저서가 그것이 한국인이 썼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무시되는 일이 없이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검토되고 평가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인이 쓴 한 저서가 다른 학자들의 주의를 항상 끌고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바삐 오기를 바란다.

표지인물 2 **名唱의 내력 찾아나선 판소리紀行**

연재기획 4 **증언으로 엮는 해방전후 출판계 ③**
—신문화의 요람이었던 東明社

초점 6 **'출판타운' 마스터플랜 윤곽 밝혀져**
3 **한국, 모스크바圖書展에 처음 참가**

화제작의 주변 8 **'빙벽'의 高元政—그 사람과 작품/박덕규**
9 **우리시대의 탁월한 文學 저널리스트/성민엽**

출판화제 10 **現代詩의 현주소 보여주는 '세계시인선'**
11 **文學賞에 새바람 일으킨 '怡山문학상'**
12 **'新稿' 중심의 북한연구 집대성**

인터뷰 13 **'세익스피어全集' 완역한 申定玉교수**

서평 14 **尹錫範의 「資本主義와 社會主義」—郭相瓊**
韓南濟 「現代韓國家族研究」—李東瑗
15 **김영식 편 「근대사회와 과학」—朴星來**
하이즈 페이겔즈 「우주의 암호」—羅逸星
16 **서우석 「음악현상학」—이장직**
동아일보 「3·1운동과 민족통일」—朴賢緒
17 **朴榮漢 「우묵배미의 사랑」—金鍾會**
白道基 「넓고 깊은 江」—정현기

에세이 18 **기행문 읽으며 '先人의 길' 추체험/김태준**
19 **책과 함께 보낸 길고 긴 여름/黃文秀**

특집 **"이 여름에 내가 읽은 책"**

20 **F.카프카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김인회**
강준만 「대통령과 여론조작」/金正鐸
21 **李基白 편 「近代韓國史論選」/박용구**
李清俊 「잔인한 都市」/서승욱
22 **朴趾源 「熱河日記」/이상섭**
慶賢秀시집 「멀리서 온 바다」/鄭孔采
23 **소련공산당 중앙위 「마르크스」/鄭雲暎**
리 와인담 「童話 쓰는 법」/曹大鉉

컬러 24 **서울시내 出版文化地圖 ② 서대문·마포·원효지역**

지금 독서중 26 **J.사이어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서울여대金鎮平교수**
정채봉 동화집 「물에서 나온 새」—미술학원장 李濟燾씨
27 **중편소설집 「겨울꽃」—작곡가 훈돌씨**

지금 번역중 27 **시모어 채트먼 「이야기와 담화」—문학평론가 金慶洙씨**

화제의 책 6 **올바른 '북한이해' 위한 시각조정**
10 **88년 한국출판계의 조감도**

독자서평 **문계봉/李忠昊/김승호/서해연/김은선**

세계의 출판 30 **화제 모으는 마르케즈의 新作소설·하**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창간호**

42 **어린이책 들춰보기**

44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李重漢)/독서퀴즈/정기구독 안내**